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0월 14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06분 19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분당과 통추 활동

지자체 과정에서 당은 거의 돌이킬 수 없이 분열돼버렸죠. 경기도지사 후보 문제를 놓고 장경우 씨를 고집하는 이기택 씨(대표)와 이종찬 씨로 세워야 된다는 동교동(계)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경기도 도지부대회가 아마 난장판이 됐버렸고, 그랬지? 폭력 사태가 (벌어져). 그렇게 해서 당의, 동교동과 이기택 진영 사이에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동교동에다 여러 가지 신호를 많이 보냈습니다. 칠(7)월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저는 그 당시 김원기 대표를 밀고 있었으니까요, 김원기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고. 일단 그렇게 해서 분당 없이 가면 결국 대선 때 너도 나도 당내에서 나오겠지만, 마땅히 대적할 껌(사람)이 없으면 (김대중 이사장을) 다시 추대하는 움직임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정계 복귀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분당 안 하고 남은 사람들이 두 파로 갈렸어요. 이기택 대표를 지지하는 쪽하고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물러나야 된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대표와 맞서는 쪽. 맞서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구당모임이라고 (했죠). 이름이 구당모임이듯이 결국 김대중 총재(이사장)를 심하게 비난하거나 하질 않고 당으로 복귀하자, 그런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했죠.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철, 제정구, 내, 조세형, 김근태 씨까지 등등 있었는데(요).

(그렇게) 남아가지고, 그때 제일 곤란했던 것은, 구당파에서도 분당을 기정사실로 하고 김대중 대표(이사장)를 비판하자 라는 입장과 그래도 생각을 바꿔서 당을 함께 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자, 그래서 김대중 총재(이사장)의 비판을 유보하자는 세력이 구당파 내부에 있었어요. 근데 또 구당파(는) 내부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으로 복귀하라는 노선을 요소요소 취하고 있었지요. 취하고 있으니까 이기택 대표 진영에서는 남은 사람들 사이에 주도권 문제가 있으니까 구당파를 치기 시작한 거죠. '디제이(DJ) 이(2)중대' 다, 이렇게 공격을 받죠. 우리도 디제이(DJ)를 시원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가면 좋겠는데 구당파 내부에 일부 사

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함께 하자는 주장을 하자고 하니, 그걸
깨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뻘히 알면서도 욕을 계속 얻어먹고 어찌어찌 봉합을 해가
지고 사일일(4·11) 총선을 치러 냅니다. 심오(15)대 사일일(4·11) 총선(이쥬).
토막 기억, 생각나는 일들은 그때 김원기, 박석무, 홍기훈, 이 사람들은 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김원기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고. 따라가면
중진으로, 말하자면 대표나 대행직을 맡을, 맡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 남
았어요. 원체 잘 알기 때문에 김원기 대표(에게) 남자는 권유도 못 했어요. 못 했
는데, 스스로 기자회견 하면서 남았죠. 그때 김원기 대표(가), 김정길 의원, 저,
이런 사람들 보고 “당신들 얼굴들 보고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어렵
게 어렵게 당을 통합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합의 명분을 깨지 않아야 된
다는 것이 호남 사람들(의 정서였죠). 호남 사람들도 통합을 깨서는 안 된다고 보
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다니는, 자기 판단 없이 끌려 다니는 정치를 이상
더 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쪽 출마를 그 뒤에 권했어요. (김
원기 대표는) ‘당신들도 옛날에 부산 가서 출마했는데, 나도 정읍 가야지’, 달랑
낙선하고. (웃음) 구십(90)년대 삼(3)당 통합할 때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부산 내려
갔을 때 부산 시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어요. 잔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
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때도 전라북도 전주
에 김원기 대표 (선거)할 때 가보면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점차 대세를 따라가더라(고요).

나는 종로에서 출마(했지요). 그 당시 부산에선 왜 부산을 떠나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부산 동구였는데 그 조금 전에 김정길 의원이 중구
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 버렸어요. 중·동구가 합쳐져 버렸으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다른 지역구로 가야되는 형편이고, 마침 종로에는 우리 당에 마
땅한 후보 지원자가 없었고(요). 그 당시 우리 깃발이 삼(3)김 청산이었죠. 상징적
으로 종로에 후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 제가 뭐 어차피 부산 동구 지역구를 그대로
지킬 수도 없고, 따라서 종로로 올라왔었죠. 당시 여론조사 같은 데 조금 고무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분당할 때 호남 사람들도 굉장히 분당을 많이 반대했습
니다. 분당을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선 절대로 이길 수 없
다, 반대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았습니
다. 여론 지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저런 (거로) 지역주의 청산을 내걸고 그야
말로 민주당의 깃발을 한번 들어본 거죠. 그 당시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다 (모였
죠). 이부영, 그지? 제정구, 이철, 박계동, 서경석 씨도 들어오고, 장기표 씨도 들
어오고, 장을병 씨도 (그렇고), 제법 진용을 갖췄습니다.

종로에서 선거를 하는데 처음엔 여론조사 하니까 팽팽하고 내가 좀 우세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선거운동 하는데 처음에 유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동안 당을 함께하던 호남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했는데, 선거가 막바지로 점차점차 들어오니까 유세장에 사람이 없어(요). 골목 안에 유세를 하면 사람이 없어요. 호남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번에 미안해, 이번에 미안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슬슬 이제 유세장에도 안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래도 큰 길가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종로통 큰 길가에서 유세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악수를 해보면 “열심히 하소! 내 부산이요” 이런 사람 있고 (웃음) “어디 사십니까” (물으면) “나 송파 사요” (웃음) ‘아하, 글렀구나’ (생각했죠). 나중에 까보니까 저 사람들(상대 후보들)은 한 삼(3)만 표씩 했고, 그지? 나는 일(1)만 칠(7)천 표밖에 못 했어요, 그렇게 돼버렸지요.

그때 이후로 내가 생각한 것이, 그때 이후로 내가 삼(3)김 청산이란 말을 거두어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역주의 청산, 지역주의 타파,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죠. 그게 논리로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타도, 타파되는 거 아니고. 결국 어떤 계기로 쌍방이 합쳐지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도로 합쳐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서로서 푹푹 뭉쳐있는 그 지역 정서를, 정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누가 설득하고 타파하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계기 중의 하나가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지지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 또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양쪽을 다 배척하는 정당 가지곤 절대 안 된다. 양쪽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뒷날 국민회의 입당할 때 생각이기도 하지요.

구심철(97)년에 국민회의 입당할 때 그 생각, 양쪽을 다 끌어안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당에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의 상징성이 너무 강하고, 지도자 중심이랄까요? 보스 중심 정당 체제에서는 보스가 양쪽 지역으로부터 다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올 때, 그때라야 비로소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제도로써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해소될 수 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종로에서 깨졌던 경험이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내 생각을, 지역 당을, 제삼(3)당으로서 지역 당을 타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굳혀준 것이죠. 지금도 제삼(3)당 하면 저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제삼(3)당 가지고는, 적어도 제삼(3)당 가지고 무슨 다른 정치를 하는 건 몰라도 지역구도 해소는 안 된다, 제삼(3)당 가지고. 제삼(3)당으로 지역구도 타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어요).

그 뒤,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남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다시 합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구당파 쪽 사람들이, 이기택 대표 축하고 또 당권경쟁을 한 번 했었죠. 했는데, 그 당시 홍성우 씨를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했는데, 졌어요. 전당대회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우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거에서 패배하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너무 지쳐 있고, 당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이 당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이 없으니깐 당권에 대한 집념도 많이 (없었고). 그렇게 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힘이 잘 모이지도 않고 퍼져버렸죠. 그 당시 우리 쪽에 소위 재야 명망가나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정당구조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 집요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이 현실 정치에서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더라구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십오(15)대 총선 있기 전에, 우리 당에, 남은 민주당 사이에 내분이 있고 하던 그 시기에 이회창 총재를 한 번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그 당시 우리 당에서 있을 때 전해들은 얘기로는 “이회창 총재가 누구를 만났는데 정치를 할 생각이 별로 없고, 혹시라도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이철이나 제정구나 나 같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런 사람들과 정치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는 말이 있고. 장기욱 의원이 그 당시 그 양반하고 좀 가깝고, 그 양반 이야기를 자주하고 그래서 모두 가서 한 마디씩 하면 도와줄지 모르겠다 싶어 찾아봤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한 마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입 껍 다물고 대답을 안 하더라구요. 무게 있는 사람은 본시 말이 없는가 보다, 말을 신중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무슨 가타부타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한나라당으로, 당시 민자당(신한국당)으로 입당(했지요). 그때 아무 말을 안 한 게 입이 무거운 게 아니고 저울질했구나. 그 뒤 무슨 연설 같은데, 근래까지도 무슨 연설 있을 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권교체의 의미를 역설(해요). 육백(600)년 동안 정권을 한 번도 바꾸어 본 일이 없고, 권력의 편에 줄을 서야 만이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우리 역사.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영달을 하려면 권력에 적극적으로 아부해야 되고, 권력에 하여튼 맞섰던 사람으로는 패가망신 안 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손들의 앞길까지 다 막아버렸던 역사 속에서 결국 사람들의 태도가 기회적으로 바뀌어서 출세 영달하(려)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아부하고 출세 영달하고, 적어도 무사하게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권력이 무슨 짓을 하던 시비 가리지 않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 되는 역사. 옳고 그름의 시비가 없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 역사. 역사에서 우리가 기회주의 역사를 가

지게 된 거죠. 결국 이회창 총재도 권력에 줄 서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울질하다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 아니냐. 이 역사를 마감하자면, 이 역사를 마감하고 양심과 신념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할 말 하고 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 한 번 바뀌어야 된다. 정권 교체를 역설하게 됐고. 이회창 총재의 신한국당 입당을 기회주의적 타협으로, 아마 내 어디 연설문 속에 많이 들어 있을 겁니다.

와이에스(YS)와 이회창의 제휴, 그 당시 그죠? 와이에스(YS)와 이회창의 제휴, 참 재밌지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와이에스(YS)(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죠? 그가 살아온 바대로 하면, 이회창 총재(는) 대쪽이고, 와이에스(YS)의 어떤 초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반기를 들으로써 대쪽이라면 서로 손잡을 수가 없는데, 절묘한 타협이 이루어지지요. 그 두 사람을 손잡게 만든 것이 대구와 충청도의 이반, 지역정권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이반이 생기게 되고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의 이반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역 단위의 이반이 생기고, 그렇죠? 대구 경북 박철언과 대구 경북의 이반,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 당권투쟁에서 밀리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통추회의를 만듭니다, 그죠? 국민통합추진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민통합추진회의를 만들었지요. 제가 이거 만드는 거 반대했잖아요. 만드는 논의를 몇 번 했었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정치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의 계절이 오면, 정치가 활발한 계절이 오면 거기에 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구칠(97)(년) 대선에 우리가 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통추 안에는 절대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또 한편으로 절대로 신한국당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성향상. 함께 있었는데, 뒤에 가서 이제 대통령선거 국면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만일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선 김대중 대통령(총재)이 승리한다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고, 결국 이 당내에 김대중 대통령(총재)하고 도저히 서로 함께, 정서적으로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제정구, 이철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신한국당 가자는 사람들과 신한국당 못 간다는 사람들 이렇게 싸움이 나면 또 다시 갈라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 보기에 또 그게 무슨 꼴이 되겠느냐. 몇 명 남아 있던 사람들마저 또 갈라져가지고 마주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이런 꼴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하지 말자.

토론을 하는데 만들지 말자는 주장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하여튼 정치

안 하고 뭐 하겠냐? 정치하려면 결국 정치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통합추진회의를 만들어서 몸값이라도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우길 수가 없(었)어요. 혼자 참여를 안 하면 ‘독불장군’ 이라고 별명이 붙어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갈라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통추에 참여를 했었죠. 결국 그 뒤에 경과를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총재)은 도저히 가망 없다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이수성 씨가 상당히 그 당시 여당의 후보로서 전망이 있다 이럴 때, 통추가 그쪽으로 좀 기울기도 했어요. 유인태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더니 “그 여당에 가서 줄 서려고 남아서 고생하고 있느냐, 안 된다, 대의명분이 뭐냐?”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 말을 못했죠. 그래서 물려서버렸죠. 나중에 신한국당 이회창 씨가 후보로 결정이 돼버리고, (김대중 총재와) 여론조사 결과는 곰배기로 나오고. 그때가 언제더라? 경선이 언제지 모르겠는데. 오십(50) 대 사십일(41), 오십삼(53) 대 삼십육(36), 오십오(55) 대 삼십오(35),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관망하고, 우리도 하다 안 되니 결국 야권의 후보를 바꿀 수밖에 없다. 야권의 제삼(3)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양방 쌍방의 후보가 정해졌는데도 여론이 이러니 후보를 바꿔 정권교체 하자, 라는 제안을 해야 된다. 그때도 그거든 저거든 안 될 거라고 난 시큰둥했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유인태 의원이 앞장서서 나서고 따라나섰지요. 조순 시장을 찾아가 후보로 한 번 나서라고 권고를 했었어요. 조순 시장한테 껄뽀한 소리를 했어요.

결국 김대중 후보가 물려서지 않으면 지기는 지는 건데, 우리가 분열로 졌다는 책임을 함께 나눠져야 된다, 그러니 (김대중 후보가) 후보를 양보하면 후보를 하는 거고 야권의 통합후보로 나가는 거고, 김대중 후보가 후보를 양보 안 하면 우리 쪽이 (포기를 해야 한다). 안 그러곤 분열된 야권 후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을 했던 말이에요. 조순 시장이 “이런 결심을 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각오하고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이기택 총재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만일에 김대중 후보가 양보하지 않으면 본인이 결국 후보를 포기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껄뽀해서 이기택 총재하고 손잡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로 추대됐다가 나중에 신한국당하고 손잡고 한나라당 만드는 바람에 이회창 총재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가 나오고 난 뒤에 이인제 씨가 등장해서 삼(3)파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인제 씨가 상승 무드를 타고 있었죠. 대체로 이회창 씨 쪽에서는 삼(3)김 청산이 주된 구호였던 거 같고, 이인제 씨는 세대교체

(가) 구호였던 거 같고, 국민회의는 정권교체(였죠). 어쨌든 이인제 씨가 상당히 인기가 뜨고 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탈해서 이인제 캠프에 합류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깐 통추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인제 후보와) 손잡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도저히 저는 그럴 수 없는 처지였죠.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거 따라서 편차가 참 많이 나지요. 김원기 대표나 박석무 씨는 호남 사람이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김정길 의원이나 나 같은 경우도 그걸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구십(90)년 삼(3)당 통합 때 이인제 씨가 적극적으로 와이에스(YS)를 지지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갔거든요. 그때 에피소드가 있거든. “신(新)사고 아니야?”, “지금 신사고 아니야?” “지금 여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민주, 반민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신사고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나하고 논쟁을 좀 했어요. “노태우 군사정권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갖고 논쟁을 하고 갔는데, 그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지요. 말하자면 가슴에 딱 못이 배겨 있는 거지요. 김정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결국 우리 그때 삼(3)당 통합을 변절이라고 했으니까, 변절의 길을 간 사람들이, 그 정권을 보고 견디기가 힘이 들었지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끝내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던 거지요. “못 간다, 만일 통추에서 이인제를 지지하겠다면 나도 출마한다.” 이래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좀 우습게 돼버리기도 하고. 달랑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되니까 우스꽝스럽게 됐지요.

한번은 통추에서 이리저리 타진을 해보니 몇 사람이 이인제 (캠프) 쪽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밤을 새워서 ‘왜 우리가 이인제한테 갈 수 없는가’ 라는 논리를 써가지고 ‘사이비 세대교체, 깃발을 내려라’, 이런 유인물을 썼지요. 유인물을 써가지고 회의하는 날 새벽에 제분을 해가지고 회의 전에 돌려버렸죠. 회의가 무산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안평수 씨가 회의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통추 사무실에 와서 지키고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유인물 읽어보고 전부 다 무산돼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슬슬 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발목을 잡은 셈이죠. 지금 그때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그렇게 해서 통추가 이인제 진영에 가담을 했더라면 그 뒤에 한나라당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하고 세를 크게 불려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저지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국민회의(에) 입당하자는 말을 못 했어요. 주장은 못하고 독자후보를 한참 내세우다가 결국 세대교체론, 3김청산론, 정권교체론

중에 정권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지고 국민회의 가자(고 했지요). 그 뒤에 통추는 이인제 씨 얘기는 끝나버리고, 한나라당 가자, 국민회의 가자로 싸움이 또 붙었어요. (웃음) 결국 싸우고 결국은 각기 갈 길 가고 말았어요, 헤어지고 말았어요.